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6월

발행일 : 2025년 5월 30일

KOTRA VIETNAM BUSINESS NEWS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	미국 신정부 출범 관련 해외시장뉴스	19
✓	<팀코리아협의회 동정> 흥연성에 모인 '팀 코리아'...최대한-베 비즈니스 행사 개최	20
✓	<기업탐방> KPC VINA	21
✓	<법률> 제조업 입지선정 시 검토해야 할 점	24
✓	<회계>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15탄	26
✓	<통관> 베트남, 밀수, 무역사기 및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 강화	28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컨터시>	30
✓	<이달의 보고서>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베트남의 대응과 한국에의 시사점 KOTRA 관세대응 지원사업 메뉴판	37
✓	<이달의 전시회> 2025 베트남 호치민 국제 베이비 & 키즈 전시회	38
✓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39





차세대 글로벌 허브로 부상하는 베트남 항공 산업, 도전과 기회

- 글로벌 항공 제조 기업의 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항공부품 생산기지 지향
- 빠른 항공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MRO, IT솔루션, 자동화기기 등 진출기회

빠르게 확대되는 베트남 항공 수송 수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베트남 항공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기록하였으며 세계에서 5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 시장으로 2035년까지 1억5000만 명의 항공 승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4년 기준 베트남의 항공 여객 수는 1억9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국제선 여객의 수는 4140만 명, 국내선은 6800만 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26% 증가, 15% 감소하였다. 항공화물의 경우, 베트남 국내 공항을 통한 화물 처리량은 약 140만 톤으로 이 중 국내 수송량은 20만 톤, 국제 수송량은 120만 톤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5-6%가량 성장한 수치이다. 이러한 항공 수송수요에 맞추어 2021~2030년 기간 동안 베트남 내 운항 여객기의 수는 연평균 9.6%씩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30년까지 승객 처리량은 2억7800만 명, 화물 처리량은 41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항공 수요 외에도 베트남에 많은 글로벌 제조기업이 들어서고 활발히 생산량을 늘려나감에 따라 관련 부품 및 완제품에 대한 항공 화물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베트남은 현재 삼성, 나이키, 폭스콘 등 대기업의 상당한 투자로 전자제품, 섬유, 의류 등의 제조 및 수출을 위한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 화물 운송은 중장기적으로 베트남 산업에 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열악한 자국 산업 역량 vs 높은 외국 기업 의존도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항공산업 전반은 외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2023년 8월 개최된 베트남 물류 및 항공화물 콘퍼런스에서는 항공화물에서 베트남 항공사의 시장점유율이 1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외항사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는 베트남 자국 항공사의 항공기 및 관련 부품 제조능력, 전문 운송 항공기 도입 등이 매우 미진하고, 베트남 공항의 처리 능력이 현재 급속히 증가하는 여객 운송을 처리하기에도 버겁기 때문이다. 현재 항공화물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는 아직 화물 운송을 위한 전용 항공사가 없다. 현재 베트남 내 항공화물은 DHL, FedEx 및 Cathay Pacific Cargo와 같은 외국계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항공기 및 관련 부품의 제조의 경우 대부분 프랑스, 일본, 미국, 한국 등 해외 기업이 설립한 현지 기업이다. 순수 베트남 로컬 기업은 베트남 국영기업 비엠텔(Viettel) 그룹의 계열사 2개사가 유일한 3차 부품 공급 업체로 알려져 있다. 항공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정부 차원에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체 항공제조 역량 확충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2024년 베트남 국제방산전시회에서 베트남은 최초의 국산 군용항공기인 플라잉 레전드 T-150을 선보였다. 이 항공기의 설계는 이탈리아 기업인 플라잉 레전드에서 진행하였으며 이후 플라잉 레전드 베트남이 기술이전을 받아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주요 부품인 엔진, 프로펠러 등 핵심부품은 유럽에서 조달하고 동체, 날개, 랜딩 기어, 액세서리 등만 플라잉 레전드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 및 조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잠재시장, 베트남의 항공기 정비 보수(MRO) 산업

베트남에서 운행되는 항공기의 유지 보수 및 수리를 포함하는 항공 지원 산업(MRO) 또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연평균 10.6%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방산업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MRO의 역량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항공 보수 및 수리 서비스의 77%가 베트남 외로 아웃소싱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범위한 인프라 개발(신규 공항 건설), 향후 10년 동안 항공 시장의 급속한 성장률, 높은 MRO 서비스 아웃소싱 비율을 감안할 때 베트남의 MRO 시장은 확실히 이 지역 및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시장 중 하나이다. 베트남 시장과 함께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동남아시아 시장 전체이다. 인도의 글로벌 시장조사 회사인 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의 항공 정비산업 규모는 2025년 기준 42억 달러이며 2030년까지 72억3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연평균 11.47%에 달하는 수치이다. 동남아시아의 허브 공항 중의 하나인 창이 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ST Engineering, SIA Engineering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있어 동남아 시장 전체를 선도하고 있다. 베트남의 폭발하는 항공 수송 및 정비수요 증가로 이들 싱가포르의 대표 MRO 기업들이 베트남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사실이다. 지난 2022년 7월, 베트남 교통부는 룡탕 국제공항에 4개의 MRO 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1억 1,8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승인했다. 이 시설은 보잉 B777/B787, 에어버스 A330/A350, 협동체 A320/A321 및 보잉 737과 같은 허가된 항공기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럽 및 미국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베트남 민간항공국(CAAV)은 국내 기업이 외국 투자자와 협력하여 노이바이(Noi Bai), 탄손넛(Tan Son Nhat), 다낭(Da Nang), 추라이(Chu Lai), 캄란(Cam Ranh), 푸꾸옥(Phu Quoc) 및 켄터(Can Tho) 공항에서 국가의 MRO 용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숙련된 인력, 격납고 및 자재 유통 허브의 부족, MRO 관련 정부 지원 취약 등으로 인해 베트남의 MRO 개발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대형 항공사와 MRO 서비스 제공업체가 빅데이터, 블록체인, IOT,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와 같은 기술을 시도하여 여러 선진 기술을 개발하여 관련 산업 기반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및 인프라 확충 노력

베트남 정부는 항공기 제조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투자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항공 및 관련 산업에 대해 10%인 VAT를 8%로 감면 적용하고 있으며, 이 조치는 2026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항공산업의 기반이 될 항공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데, Long Thanh 국제공항, Gia Binh 공항, Chu Lai 공항 등 주요 거점지역의 공항들을 확장하고 현대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MRO 수요에 대응하고자 Long Thanh 국제공항에 4개의 MRO 시설을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가장 수요가 집중되는 중심 관문은 역시 하노이와 호치민이다. 먼저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은 T2 국제선을 확장하고 있으며 2024년 5월에 시작된 확장공사는 2025년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4,600억 동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확장이 끝나면 연간 수용 능력은 1,000만 명에서 1,500만 명으로 50%가량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치민시 판손 공항의 경우, T3 터미널 신규 건설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올해 상반기 내에 개장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프로젝트

의 투자규모는 11조 동에 이른다. 수용능력은 연 3,000만 명에서 5,000만 명으로 크게 확충될 것이다. 베트남의 항공기 및 부품 제조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나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글로벌 기업을 통한 부품 제조와 관련된 협력 및 기술 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베트남의 항공 제조산업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활동 기업 현황

1990년대 에어버스 베트남을 시작으로 다양한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보잉(Boeing)은 베트남 정부와 협력하여 항공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며, 부품 제조 협력과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Mitsubishi Heavy Industries (MHI)는 2009년 최초 진출한 이래 최근 1600만 달러의 확장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부품 제조기업인 미국의 Universal Alloy Corporation (UAC) 또한 베트남 중부 다낭시에 약 1억7000만 달러 규모의 제조시설을 설립한 바 있으며, 지난 2024년 1억5800만 달러의 증액 투자를 시행한 바 있다. 대표적인 MRO 부문 회사로는 베트남 국적기인 베트남 항공(Vietnam Airline)의 자회사인 VAECO(Vietnam Arline Engineering Company)가 있다. 이들은 모회사의 항공기뿐만 아니라 베트남으로 취항하는 타국 항공사 항공기의 부품수리, 항공기 도장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SAAM(Southern Airports Aircraft Maintenance Services)의 경우 싱가포르 에어라인의 정비 자회사인 SIA Engineering과 Airport Corporation of Vietnam의 합작사로 하노이, 호치민시, 다낭 등 베트남 주요 도시에 위치한 공항에서 항공 정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시사점 및 전망

베트남의 항공 제조 및 정비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유망한 산업 분야이다. 베트남은 지리적인 특성 및 높은 관광 및 비즈니스 수요로 인해 항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항공우주 산업 육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글로벌 항공 제조기업의 잇따른 현지 공장 설립 및 투자확대 또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다만 베트남 항공업계의 높은 외국 기업 의존도와 한정된 인프라, 현지 협력업체 및 고급 인력 부족 및 디지털 변환과 같은 과제가 남아있으며 이는 향후 산업 발전에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베트남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항공기 및 관련 부품 제조기업 K사 담당자는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저렴한 인건비 대비 양질의 많은 젊은 노동인력 활용은 베트남 항공 산업의 주요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항공기 제조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며 특히 AS9100 및 후처리 관련 NADCAP 인증을 보유한 로컬 제조업체가 거의 없어 관련 수요를 현지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타 국가에서 진행 후 베트남으로 들여오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는 바 이러한 점은 베트남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최근 여러 항공기 제조 및 부품 제조 기업들은 AI 기반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 및 솔루션을 접목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때문에 베트남 항공산업이 발전할수록 항공기 제조뿐만 아니라 건설, 기계장비, ICT 등 여러 분야 기업들의 현지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투자 진출 및 협력 기회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베트남 초음파 진단기기, 인구 구조 변화 속 시장 잠재력 주목

- 베트남 고령화, 의료 서비스 수요 급증
- 시초음파 진단, 패러다임을 바꾸다

초음파 기기 시장의 성장요인

1)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현지 지역신문인 Bao HaiDuong에 따르면, 베트남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1,61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한다. 현재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베트남 정부는 향후 약 10년 안에 베트남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와 같은 노인 인구 증가는 의료비 지출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 시스템과 국가 예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현대화와 도시 외 지역의 의료서비스 확대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2023년 7월 26일 발표된 보건부의 1015/KH-BYT(2023)(국민건강관리에 대한 계획 및 지침)에는 이런 수요에 대비해 △의료기기 법령 개정 및 마련,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의료시스템 현대화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과 계획은 초음파 영상 진단기기를 활용한 조기 진단과 건강 모니터링 수요를 더욱 확대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2) 만성질환 및 유병률 증가: 전세계적으로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내원, 입원, 그리고 수술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초음파 영상 진단기기는 저비용·고효율의 진단 수단으로, 심장, 간, 췌장, 비장, 신장, 갑상선, 근골격계 등 다양한 인체 기관의 이상을 감지하고 추적하는 데 폭넓게 사용된다. 또한, 방사선 노출이 없으므로 산전 태아 검진에서도 안전하게 활용되고 있다. 현지언론 VN Express와의 인터뷰에서 하노이 심장병원의 응우옌 신 히엔(Nguyen Sinh Hien) 병원장은 암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 수가 두 배에 달하며, 심혈관 중재술 시행 환자가 매년 약 15%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40세 이전의 급성 심근경색 발병률이 급증하며 심혈관 질환이 베트남에서 주요 건강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부의 '2019-2020년 보건통계연감'에 따르면, 주요 사망 원인 중 심근경색은 10위를 차지하며 인구 10만 명당 1.43명의 발병률을 보였다. 이러한 유병률의 증가는 초음파 영상 진단기기의 활용 빈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출산율 및 산전 진단 수요: 베트남의 출산율은 최근 도시화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한동안 2.0명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출산 구조를 보여왔다. 2010년 2.00명이었던 출산율은 2023년 1.96명, 2024년 1.91명으로 추산되며, 향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젊은 인구 비중이 높은 국가로서 산전 검진 수요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국가 주요 질병 발생률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내 임신 관련 합병증은 10만 명당 602.7건으로 상위에 위치해, 산전 진단 및 모성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산모 건강관리를 포함한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의료 인프라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이는 초음파 영상 진단기기의 시장 확대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반려동물 및 축산업 성장: 초음파영상 진단기기의 수요는 인간 의료뿐 아니라 동물 의료 분야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반려동물 시장과 축산업의 성장이 동물용 초음파 기기 수요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베트남의 반려동물 관련 제품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1억 200만 달러 규모이며, 2029년까지 약 1억 6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 관련 제품 시장이 커짐에 따라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반려동물의 치료도 점차 사람에게 하듯 전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용 초음파 기기 시장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초음파 영상 진단기기 시장의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초음파 기기 시장 최신 트렌드

1) 인공지능(AI)과 초음파영상 진단기기의 융합: 최근 의료영상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초음파 영상 진단기기와 결합하며 진단 효율성과 정확도를 동시에 향상하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AI를 접목한 초음파 기기는 진단 시간 단축은 물론, 병원 내 워크플로우 개선과 진료 정확도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의료진이 복잡한 영상을 해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1월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Bach Mai 병원은 AI 기반 플랫폼을 도입해 초음파 및 MRI 촬영 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진단 시간이 최대 50%까지 단축되며, 심근경색, 선천성 심장병, 판막성 심장병과 같은 진단이 까다로운 사례에서도 실시간 분석을 통해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Gia Dinh 인민병원에서는 AI를 활용한 맹장염 진단 보조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으며, 해당 기술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호치민 지역 병원 및 농어촌 의료기관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1인당 의사 수가 부족한 베트남의 의료 현실 속에서, AI 기술이 복잡한 영상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 진단 오류를 줄이고 의료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휴대용 초음파 기기의 확산: 휴대용 초음파 기기는 기존의 카트형 장비에 비해 작고 가벼우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연결해 사용하는 형태부터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일체형 기기까지 다양한 종류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소형화와 편의성은 병실, 응급실, 외래 진료실 등 공간 제약이 있는 환경에서 더욱 큰 장점을 발휘한다. 특히 휴대용 초음파 기기는 초기 진단이 중요한 응급 상황에서 빠른 판단을 가능하게 하며, 병원 내 환자 이동 없이 즉각적인 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가격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대형 장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자본이 부족한 소규모 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도 도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성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수의학용 초음파 기기 시장의 확대: Kirin Capital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반려동물 수는 해마다 5%씩 증가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내 반려동물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위한 전문 병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밀 진단을 위한 초음파 기기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의학용 초음파 영상 진단기기는 이동이 편리한 휴대용 또는 이동식 제품으로 설계돼 있으며, 수의과 병원은 물론 동물 병원, 대규모 축산 농장 등에서도 널리 활용된다. 현지 시장에서는 Mindray, Chison, Dawei와 같은

중국 브랜드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며, 중고 초음파 장비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수출 조건에서 친환경 인증이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우리 기업도 친환경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ESG 제품 생산이 가능한 경우, 현지 시장과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다. 넷째, 글로벌 경기 둔화와 경쟁국의 부상은 베트남 섬유산업의 수출 동력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EU의 수요 감소, 재고 과잉,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부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며, 방글라데시, 인도 등 저임금 국가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며, 중고 초음파 장비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사점

베트남 초음파 영상 진단기기 시장은 의료 인프라의 지역별 격차, 인구 구조 변화, 의료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베트남으로 초음파 영상 진단기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베트남 의료기기 유통 구조는 다채널(multi-channel) 전략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주요 병원과의 직거래 방식뿐만 아니라 현지 유통업체 및 공식 대리점과의 협력 방식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현지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유통 경로의 다변화와 함께,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접근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현지 규정상 외국 기업이 직접 유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식 유통 파트너를 지정해야 한다. 따라서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베트남의 관련 제도 및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베트남 내에서 초음파 영상 진단기기의 수요는 단순한 장비 공급을 넘어, 진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술 협력, 연구 개발 등의 연계 활동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실제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베트남의 대학 및 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기술 지원 및 인력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는 현지 의료기관과의 신뢰 형성 및 중장기적 관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지역별 의료 접근성 차이를 고려할 때, 하노이 및 호치민과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유통망의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유통업체의 전문성과 시장 통찰력을 활용하는 전략적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접근은 단순한 수출 활동에 그치지 않고, 제도 이해, 유통 전략, 기술 협력 등 다층적인 고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베트남 보건의료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베트남 자동차 부품 시장동향

- 수입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자동차부품 시장, 한국 기업에 기회이자 과제
- 현지 생산은 저부가가치품 위주... 규제 대응과 유통 확대가 핵심 과제

시장동향

글로벌 자동차 산업 포털 MarkLines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200개 이상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중소기업(SME)이다. 베트남 정부는 결정문 제1168/QĐ-TTg호를 통해 2026~2035년까지 자동차 부품의 현지화율을 6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말 기준 실제 국산화율은 33.1%에 그쳐 목표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는 베트남 자동차 부품 산업의 현지 공급망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합작 투자 형태의 완성차 제조사들조차 주요 부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조립·생산되는 승용차 및 버스의 약 70.5%가 수입 부품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의 2021년 보고서(Circular 05/2021/TT-BKHDT)와 글로벌 소싱 컨설팅기업 Cosmo Sourcing에 따르면, 베트남 내 기업들은 총 287종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주로 도어 패널, 엔진실 프레임, 충격 흡수기, 운전대 등 단순 구조의 부품에 집중돼 있다. 반면, 변속기 시스템이나 엔진 등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은 여전히 현지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 자동차 부품 산업은 비교적 기술 난이도가 낮은 부품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핵심 기술 확보와 고도화 측면에서는 여전히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베트남 내 생산되는 주요 자동차 부품>

부품 구분	대표 품목	특징
플라스틱 및 고무 부품	범퍼, 트림류, 공기덕트, 씰, 가스킷 등	경량화, 외관 마감, 진동 흡수 기능 중심
금속 프레스 부품	프레임, 판넬, 브래킷, 시트 프레임 등	차체 구조 형성 및 하중 지지용
전기 및 제동 부품	배선 하네스, 브레이크 패드 및 캘리퍼, 램프류	전장 및 제동 기능 중심
인테리어 부품	좌석, 시트 커버, 대시보드, 내장재 트림, 바닥매트, 헤드라이너 등	실내 디자인 구성 및 탑승자 편의성 제공

경쟁동향

완성차 시장의 성장과 조립 수요 확대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는 다양한 글로벌 및 현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글로벌 브랜드는 주로 엔진, 전기 시스템, 제동·서스펜션 시스템 등 고부가가치 부품을 중심으로 생산하며, 베트남 현지 법인을 통해 동남아 및 기타 지역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쉬(Bosch)는 베트남 내 자회사에서 제동 시스템, 파워트레인, 전기 시스템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덴소(Denso)는 에어컨, 냉각 시스템, 센서류 등 주요 차량용 전장부품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다. 야자키(Yazaki)는 배선 하네스 및 전장 부품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며, 세플러(Schaeffler)는 베어링과 엔진 부품 등을 주요 기계 부품을 생

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Hiep Phuoc Thanh Production과 APPO 등 베트남 현지 기업들도 정밀 가공 및 사출 성형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범퍼, 인테리어 트림, 배터리 커버, 피팅, 헬, 부시류 등 상대적으로 중저부가가치 부품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일부는 현대차, 토요타, VinFast 등 주요 브랜드와 거래 중이다. 전반적으로 베트남 부품 산업은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품의 생산 및 수입과 현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저가 부품 생산이 병행되는 이원화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유통구조

베트남의 자동차 부품 유통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첫째는 완성차 조립용 부품을 중심으로 한 제조사 대상의 수입 및 조달 구조이며, 둘째는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애프터마켓 중심의 유통구조이다. 특히 하노이와 호치민시 등 주요 대도시는 물류 인프라와 접근성을 기반으로 유통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유통 기업들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에서 정품 부품 및 OEM 부품을 직접 수입해 다양한 차량 브랜드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일부 업체는 대형 창고 및 자체 재고 시스템을 갖추고, 서비스 지역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시사점

베트남 자동차 부품 시장은 낮은 현지화율과 수입 의존 구조 속에서, 여전히 한국 기업에게 중요한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 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한국 부품 기업이 시장 내 입지를 확장할 가능성은 크다. 또한, VKFTA를 통한 일부 품목의 무관세 혜택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므로, 유통 채널 확보나 현지 거래선 확대에는 경쟁과 제약이 따를 수 있다. 향후 베트남 정부는 국산화율 65% 달성을 목표로 자동차 부품 산업의 현지화와 자립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단순 조립 중심의 부품 생산에 그치고 있어, 고도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고기술 부품의 공급자로서,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부품사와의 기술 협력 또는 합작 생산을 통해 베트남 자동차 생태계 내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베트남의 통관 및 인증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으로, 수입 시 요구되는 품질 검사·라벨링 규정 미이행 시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진출 또는 수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현지 세관 규정과 제도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다. 또한 애프터마켓 유통 시장은 도시화와 소비 확대에 힘입어 지속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 전문 기업들이 증가하고, 소비자 브랜드 선호도 또한 다양화됨에 따라, 현지 유통망과의 전략적 제휴 및 차별화된 제품 포지셔닝을 통해 시장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2025년 베트남 전자산업 정보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4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는 베트남
- 단순 조립기지 탈피의 과제: 인재 양성, 기술력 확보, 현지화 수준 제고가 핵심

주요기업

베트남 전자산업은 베트남 최대의 수출산업으로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공급망에 편성돼 수출 중심으로 전환됐다. 베트남 재무부에 따르면, 베트남 전체 수출 중 전자제품 수출의 비중은 2010년 5%에서 10년 만에 32.2%로 급증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전자산업 성장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를 들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자리한다. 특히 삼성은 2008년 박닌성에 휴대전화 공장을 건설하며 베트남에 투자를 시작했고, 이후 타이응웬과 호치민, 하노이에서 5개의 생산 판매 법인과, 1개의 연구개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의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량 중 베트남 공장이 생산량의 50%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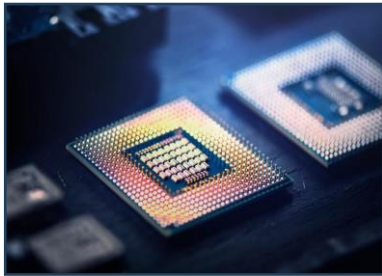
회사명	국가	진출시기	주요 내용
Samsung Electronics	한국	2008	삼성전자는 베트남 최대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기업으로, 총 투자 자본은 232억 달러임. 박닌, 타이응웬, 호치민시에 5개의 공장 및 1개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운영중. 2024년 매출은 625억 달러이며, 수출액은 544억 달러로 베트남 총수출의 13.4%를 차지
LG Electronics	한국	1995	LG의 베트남 내 총등록 투자 자본은 90억 이상. 하이퐁에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주요 공장을 보유 및 하노이, 다낭에 연구개발 센터도 보유
Amkor Technology	미국	2021	Amkor Technology Group은 베트남에 약 16억 달러를 투자 박닌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 이 공장은 연간 칩 생산량을 12억 개에서 36억 개로 확대할 계획
Intel	미국	2006	인텔은 베트남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 최초이자 최대 투자기업으로 1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함. 호치민시(HCMC) 하이테크파크에 인텔의 최대 조립 및 테스트 공장 위치
Foxconn	대만	2007	애플 주요 협력사인 폭스콘은 베트남에 총 22억 달러 이상을 투자. 박장, 박닌, 쩡닌에 공장을 운영 중. 2025년 초, Goertek Electronics Vietnam의 주식 25% 취득 계획 발표(5000만 달러에 인수 예정)

투자

2019년 정치국에서 2030년까지 기관 및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외국 투자 협력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의안 제50-NQ/TW를 발표한 이후,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점차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 칩 제조, 전자부품 등 첨단기술 분야와 더불어 친환경 기술 및 청정 에너지 산업으로 투자 흐름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베트남 정부의 산업 고도화 전략과 맞물려,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반도체 패키징 전문기업 앰코(Amkor)는 박닌성 옌퐁2 산업단지에 16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 자사의 세계 최대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공장을 건설했으며, 해당 시설은 2023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한국의 하나마이크론비나 역시 2023년 9월 박장성에 반도체 제조공장을 완공하고 2025년까지 총투자액을 1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베트남 북부지방 최초의 반도체 생산 투자 사례로, 연간 약 8억 달러의 매출과 4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중국의 다국적 전자 기업 룩스웨어-ICT(Luxshare-ICT)는 애플의 주요 공급사로, 박장성과 응에안성에 각각 수억 달러 규모의 공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투자 프로젝트는 전자부품 및 스마트 디바이스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베트남 내 전자산업 클러스터 확산을 견인하고 있다. 대만의 콰타(Quanta)는 남딘성 미투언 산업단지에 노트북 및 데스크탑 생산 공장을 신설하고 있으며, LG이노텍은 하이퐁시 내 V3 카메라 모듈 공장 설립을 통해 투자금 총액을 2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LG그룹은 하이퐁 지역 내 누적 투자액 기준 최대 투자자로, 베트남의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2024년 12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설계 기업인 엔비디아(NVIDIA)와 베트남 정부 간 협력 계약이 체결되면서 베트남 반도체 산업의 도약 가능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엔비디아는 베트남에 AI 데이터 센터와 함께 인공지능 연구개발 거점인 VRDC(Vietnam Research & Development Center)를 설립할 예정이다. 쟈슨 황 회장은 베트남을 "두 번째 고향"이라 지칭하며 장기적 파트너십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고, 이는 향후 베트남의 첨단기술 분야로의 FDI 확대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정부 역시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술기업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생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베트남 산업생산지수(Index of Industrial Production, 이하 'IIP')는 뚜렷한 등락을 보이며 산업 내 위치 변화와 경기 변동에 민감한 특성을 드러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전자산업의 IIP가 전체 산업 및 제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베트남 산업 성장을 주도하는 주요 부문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전자산업의 상대적인 성장세가 둔화되며 전체 산업 및 제조업 평균 IIP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2023년에는 전자산업이 큰 낙폭을 보였고, 이는 글로벌 전자제품 수요 감소, 공급망 차질, 반도체 수급 불균형 등의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024년에는 전자산업이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제조업 및 전체 산업과 동반 상승하였다. 특히 전자산업의 IIP가 다시 2021년 수준에 근접한 수치를 회복한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글로벌 수요 회복과 함께 베트남 내 반도체 및 전자부품 투자 확대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자산업의 IIP는 여전히 2020년 최고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기술 고도화와 내수시장 확대가 병행돼야 할 과제를 시사한다.



베트남 인쇄회로기판(PCB) 시장 동향

- 글로벌 기업의 베트남 전자 및 PCB 시장 투자 활발, 로컬 생산기업도 증가
- 한국, 베트남의 두번째 수입대상국, 최근 대중국 수입점유율 증가에 주목, 향후 대응방안 마련 필요

시장규모 및 동향

PCB(인쇄회로기판)는 산업장비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전자 부품으로, 전자제품의 부품을 서로 연결하고 전기 신호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현재 베트남에 지속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상당 부분이 전기전자 산업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삼성, 폭스콘 등 글로벌 전기전자 제조업체들 다수가 베트남에 진출하여 생산거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PCB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다. 베트남 전자산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약 88% 성장했으며 시장 규모는 210억 달러에서 395억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해당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17%에 이르며, 이는 글로벌 전자산업 평균 성장률(2023년 기준 14.6%)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최근 4년 동안 큰 하향세 없이 16% 이상 안정적으로 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베트남은 경쟁력 있는 인건비, 우호적인 정부 정책, 성장하는 기술력 덕분에 전자산업 뿐만 아니라 PCB 제조 분야에서도 주요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이 분야의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는 애플(Apple)의 인쇄회로기판(PCB) 공급 파트너인 일본의 전자부품 제조업체 Meiko Electronics가 호아빈성에 2억 달러 규모의 PCB 제조 시설을 건설한 것이다. 해당 공장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으로, 약 3000명의 현지 고용창출, 연간 수출 및 지방세수 기여 등 경제성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Meiko는 이미 베트남에 4개의 생산시설을 운영 중인데, 이번 신규 공장은 특히 애플의 차세대 제품에 사용될 고성능 PCB 및 전자부품 생산의 거점이 될 것으로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베트남의 PCB 제조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베트남 정부는 각종 세제 혜택 제공 및 관련 인프라 투자를 통해 PCB를 포함한 첨단 기술 산업의 발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므로 향후 PCB 관련 제조 산업기반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 규모

지속 성장하는 전자 및 PCB 산업 수요에 발맞추어 수입액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33억 4100만 달러 규모였던 베트남의 PCB 수입액은 2024년 46억 2300만 달러로, 이는 해당기간 연평균 9.59%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4년 기준 최대 수입대상은 중국으로 연간 수입액은 22억 200만 달러 수준이며, 한국(10억 6200만 달러), 홍콩(6억 4700만 달러), 대만(3억 9200만 달러)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주요 수입 대상국인 중국, 한국, 홍콩의 수입비중이 84.64%에 이르러, 대 한국 및 중국시장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눈여겨볼 점은 2020년 초반 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50%에 이르렀으나 2024년 기준 중국의 점유율은 47.6%에 달하며 50%에 육박하고 있다. 2020~2024년 기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연평균 8.22%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수입액은 41.02%로 빠른 시간 내 큰 폭으로 성장했다. 2022년을 기점으로 한국과 중국의 수입액은 역전됐으

며, 2024년 현재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홍콩으로부터의 수입액이 같은 기간 연평균 18.35%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실제 중국산 제품의 현지 시장 점유율은 더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해당 기간 중국 기업들의 베트남 북부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투자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와 동시에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중국제품의 약진은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산 제품은 대규모의 중국계 기업의 진출 및 투자, 저렴한 가격대비 양호한 품질을 내세우며 빠르게 베트남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

<중국계 전기전자 및 관련 기업 베트남 진출사례>

기업명	시기	주요내용
BYD Electronics	2022년	- Phu Tho성내 산업단지 공장 가동 - 태플릿 432만대, 광학 프리즘 부품 5,000만대 생산 규모
Gongjin Electronics	2019년	- 2019년 베트남 Hai Phong에 첫 진출 - 5,750만 달러 규모의 2단계 공장확장 프로젝트 진행
Geely 자동차	2024년	- 베트남의 Tasco와 합작. 조립공장 설립 - 연간 75,000대의 전기차 생산능력
DBG Technology	2023년	- Thai Nguyen성내 산업단지 공장 설립 - 스마트폰 4,000만대 생산 목표
Foxconn	2007년~	- 2023년 Bac Giang성에 6,250만 달러 투자. 공장부지 임대 - 향후 아이패드, 맥북 등 애플제품 생산라인 구축

시사점

베트남의 PCB 시장은 다양한 글로벌 전자기업의 현지 진출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전자 기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폰, 전기차, IoT 기기와 같은 분야에서의 수요 증가가 PCB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베트남 시장에서 제조된 여러 전자기기 및 PCB제품들이 미국과 유럽 연합(EU)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베트남 현지 기업들의 기술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고급 PCB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증가하는 제조수요 대비 자체 조달 및 생산할 수 있는 로컬 기업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PCB 제품을 비롯한 핵심 중간재의 대 베트남 수출증가는 지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현지 시장 트렌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과거 중국이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한국의 핵심 중간재 수출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는 국내 경기 활성화와 제품 고도화에 긍정적인 선순환을 가져온 바 있다. 다만 베트남 시장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응방안도 진출 시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현지 시장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경쟁 제품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탑재한 우리 제품이 현지 시장에서 더욱 활약하길 기대해본다.



베트남 공기청정기 시장동향

- 대기오염 심화 속,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는 공기청정기
- 유통 채널 다변화, 다기능 제품 수요 증가 등에 주목할 필요

시장동향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베트남의 공기청정기 판매량은 2019년 약 4만5600대에서 2024년 약 26만3200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판매 증가율은 점차 둔화하는 추세로, 2019년 196.9%에 달했던 성장률은 2024년에는 9.1% 수준으로 하락했다. 향후 2029년까지 판매량은 약 37만7900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성장률은 6.6%로 계속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베트남 공기청정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며, 판매량은 늘고 있으나 성장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조사기관 Markets and Data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시장은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 대기오염 심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하노이와 호치민시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차량 배출가스, 산업 활동, 건설 현장의 먼지, 농작물 소각 등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큰 문제로 부상했다. 하노이시 통계에 따르면, 2018~2020년 동안 PM2.5(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국가 기술기준인 25 $\mu\text{g}/\text{m}^3$ 의 거의 두 배를 초과했다. 또한, 현지언론에 따르면, 작년 1월 3일 오전, 하노이의 공기질지수(AQI)는 284를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로 집계됐다. 이처럼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기청정기는 주요한 대안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쟁동향

글로벌 브랜드인 삼성, 샤프(Sharp), 샤오미(Xiaomi), 필립스(Philips), LG 등은 다양한 소비자층을 겨냥한 폭넓은 제품군을 바탕으로, 베트남 공기청정기 시장 내에서 견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저가형 소형 모델부터 고급형 정밀 필터 시스템 및 스마트 기능을 갖춘 프리미엄 제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제품군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Karofi, Dr.Ozone 등 일부 베트남 현지 기업들도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브랜드 인지도와 기술력 측면에서는 외국계 주요 브랜드들에 비해 경쟁력이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사점

베트남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나, 제도적 노력에 비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다. 예컨대, 오토바이 배출가스 정기 검사 제도(Circular 47/2024)의 도입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전체 대기질 개선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기청정기는 자가 보호 수단으로서 소비자 일상에 더욱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베트남 공기청정기 시장에서는 최소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결합한 제품이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공기 정화 기능 외에 가습, 제습, 냉방, 스마트 조명 등을 통합한 제품을 제안함으로써, 도시 주거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 베트남 게임 산업, 2029년까지 24억불 규모로 성장 전망

젊고 디지털 친화적인 인구 기반, 모바일 게임 시장 연평균 9.77% 성장중임. Free Fire 등 자국 개발 게임 국제적 성공 제작 및 수출 허브로 부상. 틱톡 등 디지털 플랫폼 활용 확대, 마케팅 효율 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예상

[Vietnam News 5.5]

▶ 베트남-미국 무역협상 5월 7일 개시 예정

미국은 고관세 정책에 따라 베트남 등 6개국과 우선 협상 추진을 발표함. 베트남-미국 무역협상은 5월 7일 예정임. 베트남의 대미 수출 1분기 22%성장한 314억불에도 불구하고 섬유·가구 등 일부 업종 타격. 정부는 전략무역정책·시장 다변화 등으로 대응 예정으로 2025년 GDP 8% 성장 목표.

[VN Express 5. 5]

▶ 베트남, 카자흐스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토람(Tô Lâm) 총서기는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과 회담 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식 선언함. 카자흐스탄은 베트남이 중앙아시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첫 국가로 양국 정상, 사법, 과학기술, 에너지, 항공, 문화·스포츠, 언론·통신 분야 관련 여러 협정에 서명함.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50억 달러로 확대하기 위한 장기 비전을 수립하기로 합의함.

[Vietnam News 5.6]

▶ 중국, 베트남산 수산물 최대 수입국 등극

1~4월 베트남 수산물 총수출액 33억 달러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함. 새우를 포함한 주요 품목 수출이 가격 안정과 일부 시장 수요 회복에 힘입어 증가세를 기록함. 중국 수입액 약 7억 1천만 달러로 56% 급증하며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 일본은 약 5억 4천만 달러로 22% 증가하며 2위 유지, 미국은 약 5억 달러로 3위로 하락함.

[VN Express 5. 7]

▶ 2025년 1~4월, 국제관광객 767만 명 유치

베트남 방문한 국제관광객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 주요 시장은 중국(25.4%), 한국(20.6%), 대만, 미국 등임. 특히 중국 56.7%, 필리핀 98.3%, 러시아 110.9% 등 방문객 급증. 유럽 및 비자 면제국 대상 마케팅 강화로 올해 2,200만~2,300만 명 유치 목표

[Vietnam Plus 5.7]

▶ 2025년 1~4월 해외투자 3억 930만 달러 기록

신규 43건에 2억 6,900만 달러, 기존 12건에 4,000만 달러 추가 투자 유치. 전년 동기 대비 총 투자액 약 3배 증가, 기존 프로젝트 증액은 69배 증가함. 주요 투자 분야는 전력·가스(36%), 제조업(21.2%), 물류(16.3%), 투자 대상국은 라오스(45.5%),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등임

[Vietnam Plus 5.8]

▶ 하노이, 2030년까지 시내버스 전면 친환경 전환 추진

하노이, 2030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전기·친환경 버스로 전환 계획 발표. 2025년 4월 15일까지 연도별 전환 로드맵 제출 의무화했으며 충전 인프라 조성, 재정 지원 정책, 전력 공급 안정화 등 부처별 역할을 분담함.

[Vietnam Plus 5.9]

▶ 나트랑, 베트남 최초 국제 기준 마리나 공식 운영

베트남 해사국은 나트랑 아나 마리나에 세관 통관용 항만 코드를 부여함. 총 90ha 규모로 요트 정박·정비 등 종합 마리나 시설 보유, 최대 220척 수용 가능함. 향후 고급 요트 관광 유치 및 국제 요트 대회 개최 거점으로 육성 예정.

[Vietnam.vn 5.11]

▶ 하노이·호찌민, 전기버스 전환 가속화

하노이·호찌민시는 2030~2035년까지 전체 버스 전기화를 목표로 함. 현재 전기버스는 하노이 236대, 호찌민은 163대 운행중임. 하노이의 완전한 전기 버스 전환에는 약 18억 8천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충전소 부족·민간 투자 미비 등 인프라 확충이 주요 과제로 지적됨.

[VN Express 5. 14]

▶ 베트남-미국, 이중과세 방지 협정 기술 협의 진행

2015년 체결된 이중과세 방지 협정, 미국 비준 지연으로 발효 미진. 미국의 세제 개편(2017) 이후 협정 수정 요구로 양국은 초안 내용 입장 조율중임. 협정 발효 시 양국 간 무역·투자 활동에 법적 보호 기반 제공. 2025년 4월 기준, 미국의 베트남 투자 프로젝트는 1,447건, 119.4억 달러 규모로 집계됨.

[Voice of Vietnam 5.14]

▶ 정부, 2026년까지 세탁기, 전자레인지, 휘발유 등 품목 VAT 2%p 인하 제안

10% VAT 적용 품목 중 일부에 대해 8%로 인하, 세탁기, 전자레인지 외에도 휘발유 등 일부 특소세 품목도 포함됨. 예상 세수 감소액은 약 121.74조 VND(약 46.9억 USD), 소비·생산 촉진 기대. 제외 품목 명확화·공정한 시행 필요성 제기, 일부 의원은 전 품목 확대 검토 주장중임.

[Voice of Vietnam 5.14]

▶ 바나-수오이모 관광단지에 20억 달러 투자 승인

쩐 홍 하 부총리는 바나-수오이모 관광단지 프로젝트 조정을 위한 투자 정책 제946/QD-TTg호 승인을 발표함. 총 5조 2,000억 VND(약 20억 USD) 규모, 고급 관광·상업·숙박 복합단지로 개발예정으로 호텔 7,000실 이상, 케이블카 10개 노선 등 인프라 확충 포함. 다낭시 2021-2030 발전계획에 따라 관광 중심 경제 성장 전략의 일환임.

[Vietnam.vn 5.19]

▶ 중앙은행, 외국기관 간접투자 계좌 개설 시 '영사 확인' 절차 폐지하는 시행령 발표 (6월 16일 시행)

베트남 중앙은행은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주식시장 개선 촉진 위한 시행령 제03/2025/TT-NHNN호를 발표함. 행정 간소화로 외국인 투자 접근성 제고, 투자 유치 기대. 재무부는 NPS 도입 등 외국인 주식 매매 편의 확대 중이며, FTSE·MSCI 등 국제기관, 베트남 시장 격상 가능성을 시사함.

[Vietnam.vn 5.19]

▶ 달랏 리엔크영 국제공항, 6개월간 업그레이드 위해 임시 폐쇄 예정

활주로 및 유도로 확장에 1조 500억 VND 투자, 2030년까지 4E급 공항 격상을 목표로 함. 보잉 787, 에어버스 A350 등 대형 항공기 수용 가능, 연간 500만 명·2만 톤 화물 처리 가능 예정. 관광 성수기 피해 공사 일정 조율, 향후 340헥타르 규모로 확장 예정임.

[Vietnam Plus 5.21]

▶ 패스트푸드 매장 수 2025년 1,022개로 전년 대비 12% 증가 예상

한국 롯데리아(222개), 필리핀 졸리비(213개)를 선두로 지방 도시 중심 확장 추세임. KFC(172개), 피자헛(118개), 더 피자컴퍼니(74개), 도미노·파파이스(각 59개)가 뒤를 이었음. 디지털 기술 도입, 지방 인프라 개선 등으로 시장 연 5.65% 성장 전망 (2024~2032)

[the investor 5. 21]

▶ 미국과 관세 협상 2차 라운드서 일부 합의 도출

5월 19~22일 워싱턴에서 개최됨. 상호 정책 공유 및 초안 문안 논의. 일부 쟁점에 의견 접근, 미합의 사안은 추가 논의 지속. 6월 3차협상 예정...기술팀 간 지속적 교류·가상회의 병행 추진

[Vietnam Investment Review 5. 22]

▶ 호아팻 그룹, 베트남 중부 푸옌성에 1억6200만 달러 규모 산업단지 개발 예정

호아팻 자회사는 푸옌성 호아팻 산업단지 1단계 개발 승인 획득 (496ha 규모). 총사업비 약 4.2조 VND, 4년 내 완공 목표로 사업기간 70년임. 호아팻은 항만·제철소 포함 총 3개 프로젝트 추진예정으로 2025년 수익 25% 증가 목표

[the investor 5. 25]

▶ 고급 첨단인재 양성 국가 계획 승인

2025~2035년 고급 STEM 인재 양성 및 전략 기술 연구 인력 확보 목표. 2030년까지 ICT 8만 명, AI 8천 명 연간 배출 하여 2045년 아시아 선도 STEM 교육국 도약 목표임. STEM 교육 투자 확대, 우수 연구팀 육성, 인재 유치 정책 등 6대 실행 과제 추진 계획

[Vietnam Plus 5.27]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Quang Tri Hydrogen Power Plant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

2. 프로젝트 세부정보

발주처	Quang Tri People's Committee
프로젝트	■ 현장위치 : Dong Nam Economic Zone, Hai Lang Dist., Quang Tri Province, Vietnam ■ 프로젝트 진행상황: Calling for investment ■ 프로젝트 내용: ➢ Total area: 400-500 ha ➢ Capacity: 1,000-1,500 MW ➢ Power generation: 10 million MWh/year ■ 세부일정: ➢ 2025-2026: F/S report and preparation for investment ➢ 2026-2027: Bidding for investment selection, EPC contractor ➢ 2027-2029: Land clearance and construction ➢ COD: 2030

▶ 약가 인하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 ◇ 미국 내 약가 인하를 위한 최혜국(MFN) 가격제 도입 및 강경한 통상 대응 예고
- ◇ 제약업계 반발 및 법적·제도적 한계로 정책 실현 가능성에 제약
- ◇ 유럽 주요국은 미국의 MFN 조치가 자국 제약산업 및 통상에 미칠 영향에 대비 중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美 정기선 해운산업의 경제적 영향 및 항만료 추정 비용 분석 주요 내용

- ◇ 세계해운협회, 선박 항만료 부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정책 제고 촉구
- ◇ 정기선(Liner Shipping) 해운산업이 미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역할 분석
- ◇ 미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및 건설적 전략 수립의 중요성 강조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2026 회계연도 트럼프 대통령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 ◇ 5월 2일, 트럼프 2기 정부 첫 대통령예산안(약식본) 공개
- ◇ 복지, 환경, 연구개발, 해외 지원 등 관계 부처 예산 대폭 삭감
- ◇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13% 증액, 국토안보부 예산은 65% 파격 인상
- ◇ 파격적 예산축소 요구에 따른 정부-의회 갈등 고조 전망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흥옌성에 모인 '팀 코리아'...최대 한-베 비즈니스 행사 개최

주베트남 대사관-베트남 외교부 14일 흥옌성 '2025 Meet Krea' 행사 개최
흥옌성, 포럼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 등 배출한 곳
역대 최대 규모인 21개 지방 대표 참가...부이 타이 썬 부총리 겸 외교장관 축사

주베트남 대사관과 베트남 진출 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가 베트남 하노이 인근 흥옌성에서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행사를 열고 베트남과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주베트남 대사관은 베트남 외교부와 공동으로 14일 흥옌성에서 '2025 Meet Korea' 행사를 개최했다. 2020년 처음 개최한 이후 올해로 6회째인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북부의 핵심 경제지역을 포함하여 역대 가장 많은 21개 지방성·시 대표 및 무역·투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과 베트남 기업 110개사에서 총 37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OTRA, KOICA, 수출입은행, LH 등 공공기관 관계자와 함께 나기흥 삼성전자 베트남전략협력실장을 비롯해 GS건설, 하이트진로 등 국내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도 대거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북부의 산업 거점이자 또 럽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 등 여러 지도자를 배출하고,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인 한-베 클린 산업단지가 위치한 흥옌성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에는 부이 타이 썬 부총리 겸 외교장관 등 베트남 정부 고위 인사를 비롯해, 한국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킴박시티(KBC), 쉐어 캐주얼 홀딩스 등 베트남 우수 기업의 회장 등 경영진도 대거 참석하였다. 이번 Meet Korea는 양국 기업, 베트남 지방성 및 대사관 관계자들이 각급에서 내실있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오전 흥옌성 지도부 면담, 오후 본회의 및 부대행사(G2G, G2B, B2B 네트워킹 등)로 구성됐다. 흥옌성 한-베 기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식, 베트남 인재양성을 위한 흥옌성 소재 한국 기업(흥옌 코참 등)의 장학금 수여식 등을 개최했다. 본회의에서는 한-베 양국간 무역·투자 협력과 첨단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양국간 실질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베트남 팀코리아협의체 활동 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PC VINA, 베트남 항공우주산업의 선도주자로 자리매김하다

이재춘 법인장

1. KPC VINA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KPC Vina는 한국 김해에 소재하고 있는 케이피항공산업(주)의 베트남 법인으로 KP Aerospace Vietnam Co., Ltd.가 회사명이며, 민간항공기 기체구조물 전문 제작 업체입니다. Boeing과 Airbus를 비롯한 Global 항공기 제작사의 원가 경쟁력 제고 및 고품질의 부품 수급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베트남 다낭에 설립한 법인으로 KPC Vina는 한국의 첨단 항공기 제조 기술력과 철저한 품질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사인 케이피항공산업(주)는 1990년 항공기 치공구 제작 사업으로 창업한 이래 한국의 대한항공 및 한국우주항공과 함께 대한민국 항공 우주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대표적인 항공 부품제조 회사 중 하나로 현재 약 400여명의 직원이 경남 김해, 사천 및 부산 강서구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각종 항공기 부품 제작, 치공구 제작, 항공기 기체 조립, 우주/방산 사업 제품 제작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코로나 기간 동안 침체된 산업 분위기에 도 불구하고 2022년을 기점으로 매년 3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2025년 베트남 법인의 본격적인 기체 구조물 조립 양산 체제 돌입으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였으며, 한국뿐만이 아닌 베트남에서의 항공 우주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속 가능한 베트남의 항공 우주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2. 주요 사업(생산품)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이피항공산업(주)의 베트남 진출은 항공 우주 부품의 제작 단계에 따라 몇 가지 투자 단계가 있으나, 우선 KPC Vina 설립 초기 사업은 민항기 기체구조물 조립 사업입니다. 항공기 기체 조립은 높은 정밀도와 숙련된 경험을 요구하는 고난이도 부품 제작 사업으로 우수한 인력 선발, 효과적인 기술 이전 및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 요소입니다. KPC Vina는 항공기 기체 구조물 조립 중 복잡한 형상의 날개 끝 구조물인 보잉 787 Dreamliner 항공기

의 레이키드 윙 팁(Raked Wing Tip) 조립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잉 787 항공기의 레이키드 윙 팁(Raked Wing Tip)은 날개 끝에서 발생하는 와류(Vortex)를 방지하여 공기 역학 성능을 대폭 향상시킴으로 운항 중 공기 저항을 줄여 항공기가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연료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3. 베트남 사업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베트남, 특히 다낭 시는 항공 우주 산업 분야를 2025년 집중 개발 산업으로 선정하여 역동적이고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공 우주 산업 분야는 첨단 기술 보유 산업으로 다낭 시의 하이테크파크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토지 임대 할인 등 여러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단의 인프라 또한 한국 내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더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특히 투명한 국가 공단의 인허가 절차 및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다낭시 투자의 큰 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 우주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다낭 기술 과학 대학교(DUT)에서 매년 300명 이상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어, 젊고 열정적인 인력 확보가 용이하여 역동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베트남 현지에서 적절한 원자재 공급 업체 및 생산 협력 업체가 부족하여, 생산 초기 단계에는 제품 수급 비용이 일시적으로 증가될 수는 있으나, 지속적인 현지 업체 개발 등을 통한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경우 더욱 경쟁력 있는 사업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4.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해외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투자허가에 대한 승인, 금융 조달 방안 확보,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포함한 행정절차와 법률 체계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파악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KPC Vina는 투자 준비 단계에서부터 베트남 공무원, 대학, 금융기관 및 건설업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히 베트남 현지화 전략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기 진출한 한국 FDI 업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시행착오를 파악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경험한 애로사항들을 베트남 지역사회의 도움을 통해 오히려 더 조기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5. 향후 계획하고 계신 신사업이 있으신가요?

금년에는 보잉 787 항공기의 레이키드 윙 팁(Raked Wing Tip) 조립사업을 안정화시키고, 2026년에는 보잉 737 항공기의 날개 구조물 및 2027년에는 보잉 787 항공기의 주요 기체 구조물에 대한 추가적인 조립사업을 베트남 법인으로 이전하여 생산하기 위해 고객들과의 협의 및 관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 이내 민항기 기체 조립에 필요한 기계 가공부품의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추가 투자를 통해 항공기 부품 생산 관련 모든 기능을 수직 통합하여 원스탑 항공 부품 제조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PC Vina는 매년 5~6% 이상 증가되고 있는 베트남의 MRO 사업에 대한 수요 및 방산용 드론 생산에 대한 수요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미래 먹거리에 대한 R&D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6. 베트남 진출을 준비중인 한국기업에게 조언해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베트남 정부가 모든 해외투자기업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투자를 유치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투자 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투자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생각하는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은 첫째는 고용창출과 기술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비전과 베트남 현지에 어떻게 선진기술이 이전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적 공헌 관점에서 네트워킹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KPC Vina는 건설업체, 금융기관 및 각종 법률자문기관 등 모든 협력체계를 베트남 업체 중심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인지도를 높여 오히려 베트남 정부 및 관련 기업에서 더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제공받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문화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KPC Vina는 투자 준비 단계에서부터 베트남 공무원, 대학교 교수/학생 및 건설업체를 한국에 초청하여 항공기 제작 현장을 체험하게 하고, 한국에 파견한 베트남 직원들에게는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막 착수하는 중소기업이 지역사회와 직원들로부터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잡을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경험을 바탕으로 드린 제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조업 입지선정 시 검토해야 할 점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전현우 대표변호사

들어가며

최근 베트남 제조업이 다시금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도 제조법인 설립문의가 다시 많아졌고 이에 여러 신규 투자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 목적의 공장 입지를 선택하실 때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있어 주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입지를 판단하실 때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점은 입지, 교통 등에 따른 물류비, 임대료 그리고 직원 채용이 용이한지, 공장 또는 토지의 퀄리티 등이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검토하셔야 하는 점은 법률적으로 나의 비즈니스를 해당 공장 또는 토지에서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일 것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최종 결정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검토대상 내용

법률검토 없이 입지 관련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 인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크게 (1) 임대인 및 임대목적물 건물에 대한 인허가 및 (2) 토지 내 전체 마스터플랜 및 환경관련 이슈들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임대인 및 임대목적물 인허가 검토

제조업 입지를 위한 법률적인 부분으로 가장 먼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베트남 법률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적법한 건축물 또는 적법한 토지,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자격을 갖추는 것과 같이 아주 당연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 사례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1. 건물은 있으나 토지사용권증서상 토지만 기재되어있음: 이러한 경우는 일종의 미등기 건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지사용권증서에 건물을 등재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임대인이 간과하고 있거나, 토지사용권증서상 등재하는 것이 어려운 사유 – 소방허가 또는 건축허가 관련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례 2. 토지사용권증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토지: 공단 개발 과정에서 아직 토지사용권증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공단 허가 및 개발 과정 중 미리 선분양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리스크를 포함하여 낮은 가격을 제시하기에 매력적이나 인허가 과정 중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례 3. 부동산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른 경우: 임대인이 부동산 소유주가 아닌 경우 임대권한을 인정받는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적법한 전대차라면 문제가 없으나 적절한 계약서, 위임장 등이 없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마스터플랜 및 환경허가

공장 등이 위치한 공단 또는 산업클러스터 등에는 각 개별 필지별, 투자자별 인허가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해당 공단 또는 산업클러스터 전체 마스터플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환경오염 유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화학물질을 사용하시는 경우 이에 해당할 경우가 높습니다 – 이러한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화학물질, 폭발성 물질과 같이 유독하거나 위험한 물질을 사용하는 업종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단 마스터플랜, 환경라이선스 등에는 해당 지역에 신청이 가능한 업종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결

위와 같이 제조업 투자시 공장 입지 선정에 대한 법률 검토 중요성 및 주요 검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임대료, 물류비, 인력채용 등 여러가지 현실적인 요소가 중요하겠지만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비즈니스 수행이 어려워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 부동산, 관련 입지의 마스터플랜 등을 사전에 확인하셔서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없도록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15탄

동아회계법인 엄진용 회계사

들어가는말

안녕하십니까?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대표 엄 진용 회계사입니다. 이번 6월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경제상황하에서 부디 경제와 민생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훌륭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를 바라면서, 이번호에서는 지난달에 이어서 한국내 급여소득 등에 대한 베트남내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거주자’로서 과세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결국 ‘내가 벌어들인 소득’ x ‘세율’입니다. 내가 고생해서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서 강제로 가져가는 것이지요. 일단은 기분이 썩 유쾌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가 속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는 내가 살아가는 국가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그 국가 및 사회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공유를 한다는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유쾌하지만은 않지만 일정부분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유쾌하지 않게 생각해야하는 점은 불평부당하게 추징당하는 세금이여야 조금 더 맞겠지요. 상기 표현에서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라는 것은 그 소득의 정의가 단지 급여소득뿐만 아니라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은 앞선 호에서 이미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만, 이렇게 다양한 소득들 가운데 어떤 소득을 얼마만큼 어느 국가에 납부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개념인 ‘세법상 거주자’의 정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법상 거주자의 정의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생계문제 등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이며, 조금 더 풀어서 보자면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세법상 거주자의 판정여부는 단지 소득세 문제로만 국한되지 아니하며, 상속/증여세와도

관련이 있으며 한국과 베트남에 동시에 또는 한 국가에서 사업 또는 근로목적의 체류를 하는 경우 한국과 베트남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약칭 ‘한-베 조세조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이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첨예하고 민감한 사항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세법상 거주자’의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의 소득을 전부 해당국가에서 과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세계소득합산과세’라고 하는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지구상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법상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에서 전액 과세를 할 수 있는 과세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인세나 부가세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금과 비교하여 소득세의 세수입 비중이 높은 베트남에서는 더욱 이러한 경향이 강합니다. 참고로, 베트남 소득세 세수입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외국인입니다. 다음으로 베트남 세법상 거주자의 요건을 말씀드



리자면 규정상 2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도래하는 첫 1년을 합산기준으로 183일 이상 누적적으로 베트남에서 체류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로는 183일 이상 기간을 가진 주거목적의 주택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관광이나 단기출장으로 베트남에 오는 한국인들을 제외하곤 대부분 베트남에서 '세법상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들어오는 여러 질문들 가운데 몇 가지만 명확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우선 통상적인 비자가 아닌 '임시거주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세법상 거주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 기숙사나 호스텔, 서비스 레지던스 및 호텔과 같은 곳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비록 주택임대차계약은 없으나 동 계약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을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은 조건들로 인해 많은 베트남내 한국인들이 한국과 베트남에 동시에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우리는 '이중거주자'라고 합니다. 이중거주자가 된다는 뜻은 복수이상으로 각 국가별로 '세법상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로서 과세당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부릅니다. 다만, 각 국가들은 특정상대국와 이러한 이중과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즉, 감면 또는 면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1994년 9월 9일 이후 이 협정을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호에서는 한국내 급여소득 등에 대한 베트남내 처리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괄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계속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과세관련 사항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밀수, 무역 사기 및 위조 상품에 대한 단속 강화

FTA활용지원센터 이여람 관세사

최근 들어 밀수, 무역 사기, 위조 상품 및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의 불법 행위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대상도 다양해지면서 그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생산과 경영 활동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신뢰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여론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2025년 5월 17일,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3/CT-TTg 지시문을 발행하였습니다.

1. 예비평가 실시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기능 부서에 2025년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국적으로 밀수, 무역 사기, 위조 상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총력적으로 전개하도록 요청한 후, 예비 평가를 실시합니다. 총리는 부총리 부이 타인 손(Bùi Thanh Sơn)을 국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실무 그룹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성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장에게 해당 지역의 작업반을 구성하여 정점 공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작업반은 인민위원장을 책임자로 하고 관련 부서와 기관을 적절히 참여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 내부무

내무부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기능 부서의 역할과 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 기관 및 단위의 책임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적 조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중복, 누락, 법적 공백 및 관리 소홀을 방지하고, 밀수, 무역 사기, 위조 상품 및 지적 재산권 침해 근절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검토 결과와 추진 현황은 2025년 6월 중 총리에게 보고됩니다.

3. 국방부

국방부는 관련 기능 부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경 지역에 대한 순찰 및 통제 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를 통해 밀수, 무역 사기, 위조 상품 및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육상과 해상의 국경 지역에서 질서와 안전을 확고히 유지할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재무부

재무부는 관련 기관들이 각자의 기능과 임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며,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밀수, 무역 사기 및 세무 사기를 저지르는 기업을 신속히 적발하고 엄정히 처리하도록 합니다. 또한, 수입 물품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담당하며, 위조품, 원산지 미확인 제품 및 저품질 물품이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5. 산업무역부

각 성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위조상품, 밀수,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 불명 상품 등을 엄격히 단속하고 관리하도록 지시합니다.公安부와 협력해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여 추적성과 밀수·위조 방지를 강화합니다. 상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2025년에 개정·보완할 것을 관계기관에 즉시 건의합니다. 기능별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정의하고 중복·누락을 방지하며, 2025년 7월 총리에게 보고합니다. 시장관리부서는 조직과 개인의 법률 준수를 검사하고, 보건·농업 등 분야별 전문검사기관과 협력해 생산·유통을 감독합니다.

6. 보건부

보건부는 위조 의약품, 밀수 의약품 및 불법 의약품의 유통 및 관련 행위에 대한 검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엄정히 단속·처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식품안전법, 약사법 및 의약품·식품·기능성식품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법률을 시급히 검토하고, 필요 시 개정 및 보완할 것을 권고합니다. 보건 분야의 과학자 및 관계 공무원은 제품의 특성 및 효능에 대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광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허위 광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7.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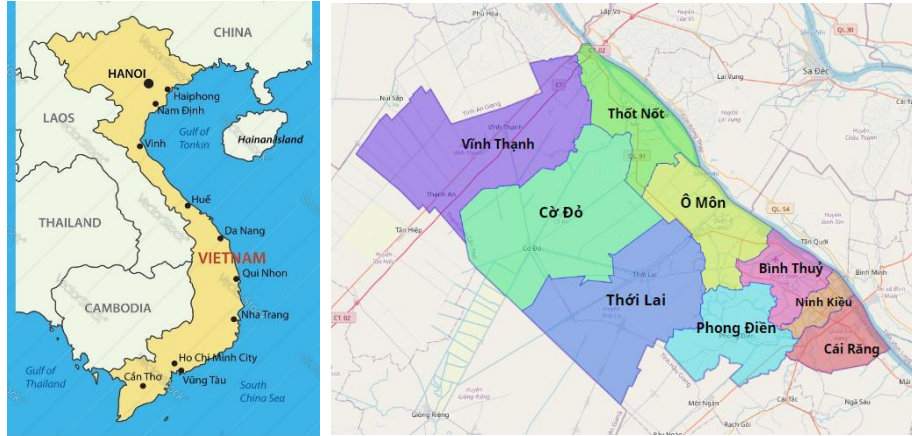
이번 조치는 베트남 전역에서 밀수, 무역 사기, 위조 상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입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를 병행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번 단속 강화로 인해 수출입 기업들은 관련 법규와 절차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내부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베트남 남부 유망 투자지-컨터시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 면적 : 1,440.40 평방 킬로미터 - 인구 : 1,271,723명('24년 평균 인구) / 도시 거주 비율 : 80%
지정학적 위치	컨터(Can Tho) 광역시는 메콩강 삼각주 지역의 경제, 교육·훈련, 과학·기술, 의료 중심지
접근성	컨터시는 호찌민시에서 동남쪽으로 169km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북쪽은 안장(An Giang)성, 남쪽은 허우장(Hau Giang)성, 동쪽은 동탑(Dong Thap)성과 빈롱(Vinh Long)성, 서쪽은 끼엔장(Kien Giang)성과 각각 접경.
GRDP 성장률 / 1인당 GDP('24년)	- GRDP 성장률 : 7.12% 1인당 GRDP : US 4,028달러('23년에 비해 10.34% 증가)
경제규모 산업별 성장률	- 총 수출액 : US 22억 9,100만 달러/총 수입액 : US 5억 4,400만 달러 - 산업별 성장률 : 제조업/건설업(7.69%), 서비스업(7.95%), 농림어업(3.21%), 생산물세-보조금 제외(3.83%)
경제구조	제조업/건설업 : 30.88% , 서비스업 : 53.12% , 농림어업 : 9.96%, 생산물세(보조금 제외) : 6.04%
인적자원	- 현재 취업 중인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615,128명(전체 인구의 약 48.35%) - 훈련 노동자비율 : 83.7 % - 자격증 소지 노동자 : 33.2 %
최저임금	현재 컨터시의 지역별 최저임금은 2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고, 최저 임금은 월 386만동 (약 US 148.7달러/월) 또는 시간당 18,600동(약 US 0.72달러/시간)이고, 최고 임금은 월 441만동(약 US 169.9달러/월) 또는 시간당 21,200동(약 US 0.82달러/시간)임.
외국인투자 ('23.12월 기준)	- 총 외국인 투자: 80개 프로젝트, 총금액: US 22억 1,973만 달러 - 한국 투자: 8개 프로젝트, 총금액: US 2억 5,979만 달러 - 한국은 22개 투자국 중 자본 규모에서 3위, 프로젝트 수에서 4위

투자환경



컨터시의 위치 및 지도

➤ 교통시스템

(도로)

- ✓ 컨터시를 통과하는 6개의 국도가 있음: 국도 1호선, 국도 91호선, 국도 80호선, 국도 91B 호선, 국도 남허우 (Hau)강, 국도 61C 호선(컨터-비탄) 등으로, 컨터와 호찌민시 및 인근 지역 간 원활한 연결을 지원함.
- ✓ 추가 예정 사업으로는 사택(동탑) – 오몬(컨터) – 종지영(끼엔장)을 연결하는 시·도 간 연결도로와 오몬교 및 컨터2대교(허우강 횡단)가 있음.

(고속도로)

- ✓ 호찌민-컨터 고속도로(154km)가 2023년 12월에 전 구간 개통되었으며, 이를 통해 호찌민시에서 컨터시까지 이동 시간이 약 2시간으로 단축됨.
- ✓ 추가 건설 중인 고속도로:
- ✓ 컨터(Can Tho)-까마우(Ca Mau) 고속도로: 2025년 12월 기본 완공 예정;
- ✓ 짜우독(Chau Doc)-컨터(Can Tho)-속짱(Soc Trang) 고속도로: 2027년 완공 예정

(수로)

- ✓ 컨터시는 호찌민시-까마우 노선과 호찌민시-끼엔르엉(Kien Luong) 노선 2개의 국가 수로 운송 노선이 통과하고 있음. 이는 메콩강 삼각주 지역의 주요 수로 운송망임.

(철도)

- ✓ 호찌민시-컨터시 철도 노선은 2021~2030 철도망 계획 및 2050년 비전 계획에 따라 베트남 총리의 승인을 받았으며, 2030년 이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철도)

- ✓ 컨터시 국제공항은 ICAO 기준 4E 등급 공항이며, 활주로: 3,000m × 45m, 여객터미널: 20,750㎡ 규모, 연간 300만~500만 명 수용 가능.



컨터시 국제공항



까이꾸이(Cai Cui)항

(항만)

- ✓ 짜녹(Tra Noc)항: 5,000-10,000 DWT 선박 접안 가능 / 연간 100만~150만 톤 처리 능력.
- ✓ 호앙지에우(Hoang Dieu)항: 최대 10,000 DWT 선박 접안 / 연간 200만~250만 톤 처리 능력.
- ✓ 까이꾸이(Cai Cui)항: 최대 20,000 DWT 선박 접안 / 연간 350만~400만 톤 처리 능력.

(물류 서비스)

- ✓ 컨터시의 항구들과 연계한 물류센터 건설 계획:
 - 까이꾸이(Cai Cui)항 물류센터: 약 100ha
 - 토넷(Thot Not)항 물류센터: 약 40ha
- ✓ (추후 개발 및 물동량에 따라 100ha 이상 확장 가능, 위치: 토 구 및 빈타인현)
- ✓ ICD(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 계획:
 - 토넷-빈타인 산업단지, 꺼도(Co Do)-토이라이(Thoi Lai) 산업단지 및 기타 산업단지들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국도를 통해 컨터시의 항구들과 연계한 기지 구축.
- ✓ 항공물류전용센터 건설 계획:
 - 컨터 국제공항과 연계된 항공 물류센터, 빈투이(Binh Thuy)구 일대에 약 50~100ha 규모.

➤ 관광

- ✓ 껀터시는 메콩강 삼각주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비옥하고 풍부한 자연 환경을 자랑함. 복잡하게 얽힌 운하 시스템과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생태관광, 과수원 체험, 수상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 산업 발전에 매우 유리하며, 관광객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음.



닌끼우(Ninh Kieu) 부두



빈 투이(Binh Thuy) 고대 주택

➤ 천연자원

- ✓ 껀터시는 메콩강의 충적평야 지역에 속하며, 비옥한 토양을 기반으로 벼농사, 곡물, 채소류, 단기 작물, 열대과일 재배 등 다양한 농업 활동에 적합하며 농업의 다각화와 특산물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광물자원

- ✓ 껀터시는 상대적으로 젊은 충적 지형의 평야 지역으로, 광물자원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이 일부 유용한 자원이 존재.
 - 벽돌·기와용 점토: 약 1,680만 m³
 - 벽돌용 점토 및 건설용 모래: 약 7,000만 m³
 - 이탄(토탄): 약 3만~15만 톤의 매장량 추정

경제개발 현황 및 발전 방향

➤ 산업단지 현황

- ✓ 현재 껀터시의 2021~2030년 기간 및 2050년까지의 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새롭게 설립이 예정된 산업단지(KCN)는 많은 대형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투자 조사 및 사업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발전 방향

- ✓ 껀터시는 제조업, 가공업, 지원산업, 첨단기술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기반 시설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메콩강 삼각주 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예정

➤ 투자 인센티브

- ✓ 광남성은 베트남 내에서 국경경제구역 3개소와 연안경제구역 2개소 등 가장 많은 수의 경제구역과 최대 면적(총 375,171ha)의 경제구역을 보유한 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책적 투자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지역임.
- ✓ 구체적인 투자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음:
 - 법인세 : 경제특구 내 신규 투자시:
 - ☞ 15년 동안 10%의 우대 세율 적용
 - ☞ 초기 4년간 세금 면제, 이후 9년 동안 세금 50% 감면

➤ 외국인투자 현황

- ✓ 외국인투자는 '24년 12월 기준 누계 총 투자액: 20억 2197만 달러, 총 프로젝트: 80건
 건너시 10대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액(\$)
오몬(OMON) 화력발전소	전력을 생산하여 지역 전력망과 국가 전력 시스템의 전력 수요를 충족	일본	1,314,070,446
스포츠 신발 생산 공장	스포츠 신발 및 신발 부품 생산	한국	171,487,093
빈탄(Vinh Thanh) 산업단지 기반 시설 건설 및 운영 1단계	산업단지 기반 시설 건설 및 운영 투자	싱가포르	159,911,181
선토리 펩시코(Suntory Pepsico) 건너 프로젝트 (SPVC Cantho Project)	각종 음료 및 생수 생산, 수출입 및 유통 권한 행사 (Suntory 및 Pepsico 시스템 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 및 유통)	네덜란드	70,800,000
Wilmar Agro Vietnam 유한 책임 회사	식물성 기름 가공, 농산물 구매 및 가공	싱가포르	63,442,388
롯데 건너 종합 쇼핑몰	종합 쇼핑몰 운영 사업	한국	62,287,336
건너 생활 폐기물 처리 공장	생활 폐기물 처리 공장 운영	홍콩	47,233,100
EB 건너 상업 센터·마트	부동산 광고·관리·경매 서비스, 부동산 사업, 기업 경영 컨설팅(법률, 재무, 회계, 세무 제외)	홍콩	31,809,523
WNK 건너 호텔	사무실 및 부동산 임대, 호텔 경영 및 숙박 서비스, 음식·음료 및 레스토랑 서비스 제공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31,402,931
C.P 축산 회사 건너 지점	수산 사료 생산 공장	태국	26,017,000

➤ 한국 투자 현황

✓ 한국 투자는 '24년 12월 기준 누계 총 투자액: US 2억 5979만 달러, 총 프로젝트수: 8건

컨터시 한국 투자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내용	위치	투자액(\$)
스포츠화생산공장-TKG TEAKWANG 컨터유한회사	스포츠신발 및 신발부품 생산	산업단지내	171,487,093
롯데컨터종합쇼핑센터	종합쇼핑센터운영	산업단지외	62,287,336
컨터시빈투이(Binh Thuy)군, 보반끼엣 (Vo Van Kiet)도로양옆 신도시 구역9	컨터시의 신도시 및 스마트시티 기준에 따라 사회 및 기술 인프라가 완비된 신도시 건설투자	산업단지외	19,970,000
롯데시네마컨터 프로젝트	국제 기준 영화관 운영	산업단지외	2,600,000
롯데마트 컨터 롯데시네마	국제 기준 영화관 운영	산업단지외	2,000,000
컨터PKLAND유한회사	주거용 주택 및 토목 공사 건설, 부동산 자문·중개· 경매, 토지 사용권 경매, 급배수 시스템, 난방 및 냉 방 시스템 설치, 전기 시스템 설치	산업단지외	867,302
롯데리아베트남유한회사컨터시 지점	국내외 원료를 사용한 식음료 가공 (패스트푸드 및 커피 포함); 자사가 가공한 패스트푸드 및 커피 판 매매장 운영	산업단지외	565,133
HWARANG소프트웨어유한책임회사	소프트웨어 출판	산업단지외	17,621

➤ 산업단지 현황

✓ 주요 산업단지 정보

산업단지명	설립연도	면적(ha)	비고
Tra Noc 1 산업단지	1996	135	- 토지 임대료: 연 2.5 USD/m² - 인프라 사용료: 연 0.4 USD/m² (2025년 6월 30일까지)
Tra Noc 2 산업단지	1998	155	- 토지 임대료: 연 4.0 USD/m² - 인프라 사용료: 연 0.4 USD/m² (2025년 6월 30일까지)
Hung Phu 1 산업단지	2005	262	N/A
Hung Phu 2 산업단지	2009	67	N/A

➤ 산업단지 현황

✓ 주요 산업단지 정보

산업단지명	설립연도	면적(ha)	비고
Thot Not 산업단지	2009	74,87	- 토지 임대료: 연 2~2.8 USD/m² - 인프라 사용료: 연 0.3 USD/m² (2025년 6월 30일까지)
Vinh Thanh 산업단지 1단계	2022	293,70	인프라 건설 중
Vinh Thanh 산업단지 2단계	2024	540,58	부지 보상 및 정리 단계 진행 중

투자 유망분야

➤ 업종/분야

✓ 도시 중심 개발 ✓ 상업 및 서비스 센터 ✓ 관광 산업 ✓ 물류 산업 (Logistics) ✓ 가공 제조 산업 ✓ 첨단기술 적용 농업 ✓ 교육 및 인력 양성	✓ 전문 의료 서비스 ✓ 과학기술 산업 ✓ 문화 산업 ✓ 스포츠 산업 ✓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통합 인프라 구축 ✓ 지역 내·외 및 국제 연계를 위한 교통 및 물류 기반 시설
---	--

투자유치기관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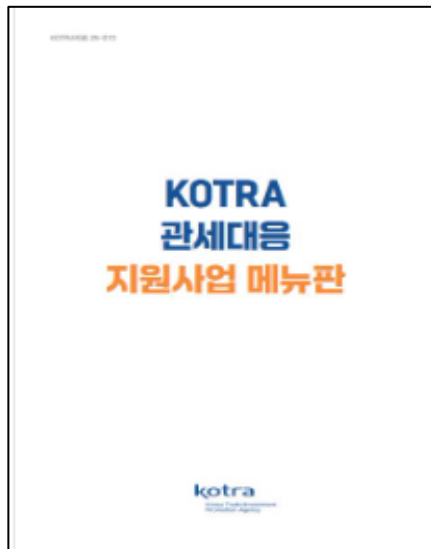
기관명	연락처
컨터 수출가공 및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 Tel: +84-29-2383-0773 - Email: cepiza@cantho.gov.vn - Website: www.cepiza.cantho.gov.vn
컨터 투자무역진흥 및 박람회센터	- Tel: +84-29-2383-0487 - Email: ttxt@cantho.gov.vn - Website: https://canthopromotion.vn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베트남의 대응과 한국에의 시사점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미국의 대베트남 상호관세 부과 내용 및 영향
2. 베트남의 대응 및 향후 협상방향 전망
3. 한국기업에 대한 영향 검토
4. 시사점



KOTRA 관세대응 지원사업 메뉴판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KOTRA 관세대응 지원사업 안내
2. 정부·유관기관 관세대응 지원사업 안내

2025 베트남 호치민 국제 베이비 & 키즈 전시회

전시회명	2025 베트남 호치민 국제 베이비 & 키즈 전시회 [VIETBABY]
개요	베트남 유일한 유아동 분야 국제 전시회로, 높은 출산율로 인해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 유아용품 시장 공략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이며, 베트남은 유아 및 아동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로서, 교육분야 소비금액이 GDP 대비 5.8%를 차지하며, 높은 교육열을 보임.
개최기간	2025.06.05 - 2025.06.08
개최장소	SECC (Saigon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개최규모	4,500sqm(m2)
웹사이트	https://segefairsglobal.com/
산업분야	유아·아동&교육&임산부
전시품목	임신 관련 제품, 산전 관련 제품, 육아용품 공급업체, 안전 공급업체, 프랜차이즈 서비스, 식품, 가구, 장난감, 가정용품, 학습 프로그램, 출판, 예술 및 음악 및 운동, 교육 기관 공급업체 등
주최자	코엑스(COEX)&세계전람+82-2-3453-2117 / overseas.segefairs@gmail.com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1. 1~2025. 4.30 기준 누계		2025. 1. 1 ~ 4.3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 국	10,177	93,208.60	115	148	2,817.77
싱가포르	4,068	85,581.18	168	1,598.54	3,247.01
일 본	5,564	79,085.64	96	573.24	1,590.98
대 만	3,317	41,713.09	64	389.6	791.64
홍 콩	2,945	39,526.32	150	499.85	924.99
중 국	5,436	32,513.09	346	1,517.92	1,872.45
버진아일랜드(영)	934	24,284.07	11	232.75	622.75
네덜란드	461	15,022.00	7	51.56	101.56
태국	767	14,857.78	14	46.36	506.35
말레이시아	771	13,599.90	14	5.87	72.28
미국	1,447	11,938.82	42	144.52	176.27
기 타	7,133	62,488.19	70	383.91	1,092.43
전체 합계	43,020	513,818.68	1,204	5,592.11	13,816.48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산업	2025. 4. 30 기준 누계		2025. 1. 1 ~ 4.3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8,266	315,752.44	463	3,387.89	8,920.43
2	부동산 경영	1,254	76,364.37	39	1,507.02	2,829.89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99	42,072.30	1	116.2	140.03
4	호텔, 외식서비스	1,024	14,157.95	26	123.49	352.05
5	건설	8,412	12,165.12	377	123.94	287.74
6	도소매, 유지보수	1,853	10,883.38	17	5.46	160.96
7	물류운수	1,228	6,670.05	33	4.82	208.61
8	과학기술, 전문활동	4,914	6,130.61	139	169.37	610.85
9	정보통신	3,158	5,157.91	67	8.37	6.95
10	채광	107	4,870.39	-	-	0.61
11	교육, 양성	703	4,634.29	6	0.6	22.84
12	농,임,수산	539	3,841.68	3	11	-14.05
13	예술 오락	151	3,169.30	1	0.16	0.68
14	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87	3,028.09	3	70.58	-101.61
15	의료와 사회복지	159	1,844.59	-	-	161.18
16	행정, 지원 서비스	695	1,192.01	23	7.29	77.73
17	금융, 은행, 보험	103	935.14	2	2.6	148.16
18	기타 서비스	162	938.41	4	3.33	3.45
19	가구내 고용활동	6	10.64	-	-	-
	합 계	43,020	513,818.68	1,204	5,592.11	13,816.48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증감율%)

구 분	2022	2023	2024	2025.4
수 출	3,713	3,546	4,055	1,403(+13.0)
수 입	3,589	3,263	3,807	1,365(+18.6)
무역수지	124	280	247	30.8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2	2023	2024	2025.4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7,994	52,379	53,891	17,799(-1.9)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55,536	57,336	72,584	29,259(+36.2)
기계/플랜트 및 부품	45,751	43,128	52,191	17,086(+16.1)
섬유/직물제품	37,566	33,329	37,036	11,764(+12.8)
신발류	23,895	20,237	22,871	7,601(+14.5)
원목 및 목제품	16,011	13,467	16,282	5,388(+9.7)
철강제품	7,993	3,973	4,594	1,858(+32.0)
수송수단 및 부품	11,988	14,157	15,066	5,284(+9.4)
수산물	10,923	8,971	10,040	3,211(+18.3)
원사(Yarn)	4,713	4,355	4,407	1,394(-1.2)
기 타	98,934	103,339	116,569	39,695
합 계	371,304	354,671	405,531	140,339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2	2023	2024	2025.4
전자제품 및 컴퓨터	81,884	87,965	107,053	42,879(+35.4)
기계/플랜트 및 부품	45,192	41,579	48,887	17,582(+24.3)
각종 전화기 및 부품	21,126	8,749	10,403	3,417(+11.4)
의류(원단)	14,706	13,016	14,905	4,869(+8.5)
플라스틱 원료	12,387	9,755	11,780	4,093(+19.4)
각종 철강	11,920	10,425	12,583	3,607(-7.1)
기타 비금속	9,253	7,626	9,554	3,556(+29.7)
플라스틱 제품	8,119	7,508	8,853	3,085(+18.6)
화학제품	9,144	7,605	7,735	2,465(+2.8)
화학물질	8,747	7,726	8,286	2,580(-2.9)
기 타	136,423	124,419	140,724	48,417
합 계	358,901	326,373	380,763	136,55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1	2022	2023	2024	2025.4
1	미 국	96,293	109,388	97,020	119,501	43,417
2	중 국	56,009	57,702	61,207	61,211	18,102
3	한 국	21,945	24,293	23,498	25,619	8,983
4	일 본	20,128	24,232	23,314	24,608	8,476
5	홍 콩	11,996	10,936	9,631	12,423	4,568
6	네덜란드	7,686	10,430	10,241	12,993	4,156
7	독 일	7,286	8,968	7,400	7,934	3,289
8	인 도	6,259	7,961	8,498	9,064	3,296
9	태 국	6,161	7,476	7,192	7,782	2,674
10	영 국	5,765	6,065	6,345	7,543	2,541
	기 타	96,782	103,853	100,325	116,853	40,837
	합 계	336,310	371,304	354,671	405,531	140,339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1	2022	2023	2024	2025.4
1	중 국	109,874	117,866	110,644	114,020	53,161
2	한 국	56,155	62,088	52,511	55,925	18,476
3	대 만	20,772	22,631	18,421	22,741	9,305
4	일 본	22,648	23,373	21,638	21,588	7,787
5	미 국	15,270	14,470	13,822	15,102	5,665
6	태 국	12,564	14,092	11,797	12,447	4,204
7	오스트레일리아	7,946	10,144	8,533	7,592	2,437
8	말레이시아	8,148	9,124	7,809	9,133	3,126
9	인도네시아	7,587	9,641	8,728	10,527	3,734
10	인 도	6,950	7,086	5,864	5,829	1,876
	기 타	64,320	68,386	66,606	105,859	26,779
	합 계	332,234	358,901	326,373	380,763	136,55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율%)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4
수출	56,729(+16.9)	60,972(+7.5)	53,479(-12.3)	58,321(+9.1)	18,960(+6.6)
수입	23,965(+16.5)	26,726(+11.5)	25,941(-2.9)	28,440(+9.6)	9,926(+6.2)
무역수지	32,763	34,246	27,550	29,880	9,034

자료원: KITA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	2025.4
반도체	14,026(22)	16,240(15.8)	12,729(-21.6)	18,039(+41.7)	7,177(+38.4)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2,050(26.1)	12,527(4.0)	12,350(-1.4)	11,227(-9.1)	2,844(-6.2)
석유제품	1,157(-3.2)	3,733(222.3)	3,327(-10.8)	2,731(-17.7)	624(-39.4)
무선통신기기	3,315(-4.2)	2,358(-29.2)	2,166(-8.1)	2,511(+15.9)	797(-2.6)
합성수지	2,415(49.5)	2,581(6.9)	2,001(-22.5)	2,333(+16.8)	745(-3.0)
기구 부품	2,405(7.3)	2,194(-8.8)	1,861(-15.1)	1,772(-4.8)	564(-0.7)
플라스틱 제품	1,174(5.3)	1,067(-9.2)	1,021(-4.2)	1,055(+3.4)	338(-0.8)
철강판	1,267(20.4)	1,069(-15.6)	887(-17.0)	994(+12.0)	317(+14.8)
기타기계류	957(43.0)	793(-17.1)	801(+1.0)	664(-17.0)	191(-25.0)
계측제어분석기	717(4.5)	815(13.6)	734(-9.9)	593(-19.1)	174(-6.8)
기타	17,039	17,242	15,612	16,402	5,189
합계	56,729(16.9)	60,972(7.5)	53,489(-12.3)	58,321(+9.1)	18,960(+6.6)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	2025.4
무선통신기기	5,579(12)	5,986(7.3)	4,543(-24.1)	4,678(+3.0)	1,338(-18.2)
의류	3,393(7.9)	3,840(13.2)	3,542(-7.7)	3,593(+1.4)	1,229(+1.2)
컴퓨터	1,659(30.6)	1,948(19.1)	2,075(+6.6)	2,383(+14.9)	972(+1.2)
반도체	750(33.8)	787(5.0)	2,053(+160.9)	2,976(+45.0)	1,367(+54.8)
산업용 전기기기	725(26.2)	970(33.8)	1,396(+44.0)	1,699(+21.7)	611(+17.4)
신변잡화	984(-4.4)	1,250(27.2)	1,252(+0.1)	1,221(-2.5)	419(+8.8)
목재류	755(19.5)	942(24.8)	722(-23.3)	681(-5.7)	219(-1.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876(-14.7)	783(-10.5)	657(-15.9)	598(-9.1)	187(+27.8)
기구부품	624(29.6)	654(4.8)	571(-12.7)	654(-14.6)	228(+27.9)
영상기기	426(8.9)	441(3.6)	409(-7.2)	414(+1.2)	128(-2.5)
기타	8,161	9,103	8,718	9,543	3,228
합계	23,966(16.5)	26,726(11.5)	25,938(-2.9)	28,440(+9.6)	9,926(+6.2)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4~2025년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시 기	단위	국 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GDP증가율		2024년(연간)	%	7.09	5.03	4.4	4.8	2.5	5.6
		2024년 4Q	%	7.55	5.02	4.3	5	2.5	5.2
		2025년 1Q	%	6.93	4.87	3.8	4.4	N/A	5.4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4년(연간)	-	N/A	N/A	124.9	133.1	96.57	N/A
		2025년 2월	-	N/A	N/A	112.6	126.3	98.18	N/A
		2025년 3월	-	N/A	N/A	124.6	138.1	105.03	N/A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4년(연간)	-	N/A	N/A	N/A	49.35	49.88	N/A
		2025년 2월	-	49.2	53.6	50.7	49.7	50.6	51
		2025년 3월	-	50.5	52.4	50.6	48.8	49.9	49.4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4년(연간)	-	N/A	N/A	N/A	N/A	N/A	N/A
		2025년 2월	-	N/A	126.4	N/A	N/A	N/A	N/A
		2025년 3월	-	N/A	121.1	N/A	N/A	N/A	N/A
	소매판매	2024년(연간)	-	9	N/A	N/A	N/A	N/A	1.8
		2025년 2월	-	9.4	0.2	N/A	N/A	N/A	1.3
		2025년 3월	-	10.8	N/A	N/A	N/A	N/A	1.1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4년(연간)	%	3.63	N/A	2.4	1.8	N/A	3.2
		2025년 2월	%	2.91	△0.09	0.9	1.5	N/A	2.1
		2025년 3월	%	3.13	1.03	0.9	1.4	N/A	1.8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4년(연간)	%	N/A	N/A	N/A	N/A	N/A	N/A
		2025년 2월	%	N/A	N/A	N/A	N/A	N/A	N/A
		2025년 3월	%	N/A	N/A	N/A	N/A	N/A	N/A
고용	실업률	2024년(연간)	%	2.24	N/A	2	3.3	1	3.8
		2024년 4Q	%	2.22	N/A	1.9	3.2	0.89	3.4
		2025년 1Q	%	2.2	N/A	2	3.2	0.89	4
무역	수출증가율	2024년(연간)	%	14.3	2.28	N/A	9.4	5.42	△0.6
		2025년 2월	%	25.7	14.05	5.4	6.2	14.04	3.9
		2025년 3월	%	14.5	3.16	2.3	6.8	17.84	N/A
	수입증가율	2024년(연간)	%	16.7	5.31	N/A	5.6	6.34	1.4
		2025년 2월	%	40	2.3	3.7	5.5	3.96	1.9
		2025년 3월	%	19	5.34	4.6	△2.8	10.18	11.9

[자료원]

-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MIER, S&P
 - (태국) 산업경제실(OIE), 태국중앙은행(BOT), 태국상공회의소대학교(UTCC), 태국상무부(MOC), 태국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 전망치는 *표시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인도
비즈니스 협력센터

PARTNERSHIP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 +84 24-3946-0511 ✉ soorin@kotra.or.kr <저작권자©KOTRA >